



KIA 버나디나 “KS MVP 아깝긴 해...올해 재도전”

“지난해보다 나아지는 것 목표...훈련보다 컨택에 집중”

KIA 외국인 타자 로저 버나디나(34)에게 자만은 없다. KBO리그 2년차 시즌을 앞두고 있는 버나디나는 일본 오키나와 스포팅캠프에서 투타를 지칭할 정도로 열심히 있다. KIA 김기태 감독은 “혼자 투타를 치고 싶다고 하더라. 연습을 많이 한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쇼타 코우조 타격코치도 “지난해 이맘때와 완전히 다르다. 몸도 확실하게 만들어왔고, 언제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오 히러 페이스를 제어해주는 관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IA 관계자들도 “코치님들도 말리지 못할 만큼 버나디나가 열심히”며 2년차 시즌이라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거나 하는 모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버나디나는 지난해 139경기에서 타율 3할2푼 178안타 27홈런 11타점 118득점 32도루 O.B .912로 맹활약하며 골든글러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지난해 좋은 성적을 냈지만 올해도 잘 할 것이라 보장은 없다

올해 다시 이뤄야 할 것이 많다. 캠프에서 매일 하루하루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즌을 마친 뒤 버나디나는 미국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았고, 메이저리그 재도전 가능성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선택은 KIA 복귀였다. 전년도 85만 달러에서 오른 11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이에 대해 버나디나는 “KIA에 있는 게 마음 편하다”며 “작년에는 사람도 새로 사귀어야 하고, 새로운 문화나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올해는 다르다. 아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야구할 수 있다”고 KIA 복귀 이유를 말했다. 올 시즌 목표는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싶다. 삼진을 줄이거나 도루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선수라면 항상 발전해야 한다. 지난해 성적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며 “작년에 정타력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그렇게 의식 안 한다. 내 스윙에서 컨택만 잘하면 알아서 잘 날아갈 것이다. 훈련보

다 컨택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우승팀 KIA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버나디나는 “지난해 우리팀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올해도 다치지 않고 건강을 계속 유지한다면 작년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통합우승 2연패를 자신했다. 더 나아가 한국시리즈 MVP에도 재도전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5경기에서 버나디나는 1루수 10안타 타율 5할2푼6리 1홈런 7타점 3득점 1도루로 맹활약했지만, 2차전 완봉승과 5차전 세이브로 10이닝 무실점 완투를 펼친 양현종에게 MVP를 내줘야 했다. 양현종이 48표를 받아 24표의 버나디나를 제쳤다. 이에 대해 버나디나는 “MVP가 아깝긴 아까웠다 하지만 양현종이 워낙 잘했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MVP를 받지 못한 아쉬움은 없고,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다시 한국시리즈에 올라간다면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겠다. 일단 한국시리즈부터 가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시 뛰는 심석희 “중국팀 방해, 극한상황 만들어 훈련”

최근 코치와 마찰로 맘고생 “본격적 마무리 잘할 것”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21·한국체대)의 집주가 다시 시작된다. 심석희는 5일 오후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묵게 될 강릉 올림픽선수촌에 입촌했다. 최근 심석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코치와의 마찰로 맘고생을 했다. 손찌깢까지 당하자 이를 동안 합숙소를 떠나기도 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훈련에만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에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논란 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타난 심석희는 “여기까지 오게 되니 (올림픽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니 잘 하겠다”고 밝혔다.

동료들이 있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이들은 심석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달 30일 말안니 김아람(23·고양시청)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심석희의 생일파티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심석희는 “대표팀 선배들이 잘 챙겨줘서 좋은 시간 보냈다”며 고마워했다.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셋벌로 떠오른 심석희는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을 노린다. 여러 종목 중 동료들과 함께 하는 계주에 더욱 마음이 가는 눈치다. 심석희는 “계주는 다들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벌 중국



선수들의 방해를 두고는 “어무래도 가장 많이 견제되는 선수들”이라면서 “좀 더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훈련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최민정, 한국최초 올림픽 4관왕?...“가능하면 최선 도전”

美인론, 500m·1000m·1500m·3000m 계주 금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꿈의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최민정(20·성남시청)이 평창 대회 성공을 위한 키워드로 ‘도전’을 꼽았다. 최민정은 5일 오후 대회 기간 지날 강릉올림픽선수촌 입촌 직전 “도전이다. 모든 종목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 여러 감정이 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족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많이 응원해주면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올림픽 경험은 없지만 기량은 이미 세계 최강이다. 2014~2015 시즌 시니어 무대에 뛰어든 최민정은 2015년 3월 첫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 1위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연패에 성공했다. 올림픽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4차 대회에서는 계주를 포함해 무려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는 3일 최민정이 4개 종목(500m·1000m·1500m·3000m 계주) 모두 시상대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계 올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가 4관왕에 등극한 사례는 없다.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안현수(러시아령 빅토르 안), 진선유가 3관왕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최민정은 “ISU 랭킹만 보고 예측한 것 같다”며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승부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쇼트트랙 대표팀은 코치의 심석희 폭행 파문으로 혼영을 치렀다.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수년 간 올림픽을 위해 호흡을 맞춘만큼 빠르게 극복했다. 최민정은 “큰 대회 앞두고 팀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김)아람 언니가 잘 이끌고 동생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면서 나쁜 기억은 잊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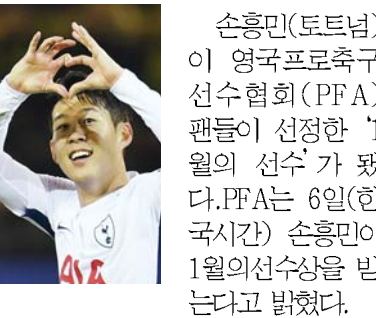
김보름 3000m도 뛰나, 러시아 선수 탈락...9일 결정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김보름(25·강원도청)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알렉산드르 키발코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에게 김보름의 평창올림픽 3000m 출전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출전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ISU는 2017~2018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배분했다. 김보름은 매스타트에서만 출

전권을 확보하고 3000m에서는 예비 명단 2순위에 이름을 올렸다.엔트리 미사용분이 발생할 경우 후보 중 해당 종목 엔트리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규정에 따라 김보름이 예비 1순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스피드스케이팅 엔트리 배정 절차가 모두 끝난 1월24일까지 여자 3000m 엔트리 미사용분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 선수 1명이 평창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Olympic Athlete from Russia) 169명 명단에 포함됐던 러

시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의 율가 그라프(35)는 지난달 30일 평창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빙상연맹은 ISU 기술위원장에 질의했고, 가능하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보름의 평창올림픽 여자 3000m 출전 여부는 경기 전날인 9일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뉴스

손흥민, 영국프로축구선수협 팬 선정 ‘1월의 선수’상 영예



손흥민(토트넘)이 영국프로축구선수협회(PFA) 팬들이 선정한 ‘1월의 선수’가 됐다. PFA는 6일(한국시간) 손흥민이 1월의 선수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득표율 23%를 올려며 18%에 그친 세르히오 아게로(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생애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흥민은 1월 리그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출장한 경기에서 토트넘(승점 49)은 3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면서 4위 리버풀(승점 51)과 승차를 2점으로 좁혔다. 한편 이 상은 팬들이 프미어리 그부터 4부리그까지 소속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선수를 뽑아 선정한다. 1월에는 손흥민과 아구에로를 비롯해 에당 아자르(17%·첼시), 마르코 아르нау투비치(17%·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로이 키세(14%·맨체스터 시티), 카스퍼 슈마이켈(11%·레스터 시티) 등이 후보에 올랐다. 뉴스



김신욱 A매치 4G연속 헤딩골, 축구대표팀 ‘新’

김신욱(197cm·전북현대)이 A매치 4경기 연속 헤딩골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대한축구협회는 “최근 김신욱이 4경기 연속 터뜨린 헤딩골은 역대 한국대표팀 A매치 사상 최초”라고 5일 밝혔다. 김신욱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일본전에서 헤딩으로 팀의 첫 번째 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월 27일 물도바전, 30일 자메이카전에 이어 지난 3일 라트비아전까지 4경기 연속 헤딩으로 득점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집계 따르면 A매치에서 한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경우는 지금까지 15회(선

수는 12명)다. 그러나 4경기 연속 헤딩으로 득점을 올린 선수는 김신욱이 최초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3경기 연속 헤딩 득점도 없다. 1970년대 190cm의 큰 키로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한 김재한도 머리로 많은 골을 넣었지만 헤딩으로 연속 득점한 것은 1977년 2경기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의 헤딩 연속골은 설기현이 2006년 9월2일 이란전과 9월6일 대만전에서 1골씩 터뜨린 것이다. 한편 역대 한국 대표팀 A매치에서 3경기 연속 헤딩으로 득점을 기록한 것도 이번 물도바, 자메이카, 라트비아전이 처음이다.

마혼일곱살 日스키점퍼 “강추위, 경기보다 개회식이 걱정”

8번째 출전...일본 선수 최다 참가기록

일본 스키 점퍼의 ‘살아있는 전설’인 가사이 노리아키(46)에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8번째 꿈의 무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다른 선수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충고는 “개회식의 추위를 조심하라”다. 가사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자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일본 선수 최다 올림픽 참가기록을 보유하게 될 가사이는 현장에서 일본 취재진과 만나 평창 대회를 앞둔 각오 등을 전했다. 자연스레 동계올림픽에서는 빠질 수 없는 추위 이야기도 나왔다. 동계올림픽과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날씨로 불만을 자아낸 2010년 밴쿠버 대회와 2014년 소치 대회와 달리 평창 대회는 강추위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평창의 2월 예상 체감온도는 영하 14도(화씨 7도)다.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데일리스포츠에 따르면 가사이는 평창 추위에 대해 “경기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개회식”이라고 말했다. 성대한 잔치의 서막을 알리는 개회식은 3시간 가량 펼쳐진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만큼 추



위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를 개회식 입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가사이는 일본 선수단 기수까지 많아 더욱 그렇다. 가사이는 “휴대용 난로를 몸속에 넣어 개회식에 나올 것이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웃었다. “목표는 항상 같다.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다짐도 했다. 뉴스